

성명서

발신 : **한국교회연론회**
KOREAN ASSOCIATION OF CHURCH COMMUNICATION

◎ 대 표 박봉상목사
대 변 인 이억주목사
☎ 02-708-4585 / FAX 02-708-4587
◎ 제공일 : 2007년 7월 23일 / 총 1 쪽

수신 :

자유와 평화를 위한 봉사자를 석방하라

지난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의하여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사건에 대하여 온 국민과 함께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이들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내전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봉사자로 참여한 사람들로, 폭력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탈레반 세력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봉사단원을 납치하여, 한국군 철군과 반정부 세력의 포로석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순수하게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마치 전쟁포로처럼 다루는 것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탈레반 세력은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히 석방하라.
2.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며, 평화적인 민간인 활동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라.
3. 우리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
4. 이번사건이 정치적, 이념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5. 한국교회는 16,000명 선교사 파송 시대에 맞게, 선교사와 선교활동에 대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6.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평화를 위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봉사의 가치가 손상을 입어서도 안 되며, 그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교회의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납치된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가족과 고국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한국교회연론회
KOREAN ASSOCIATION OF CHURCH COMMUNICATION

대 표	박 봉 상 목사
공 동 대 표	김승동 박영률 원광기 이정익 목사
실행위원장	황 규 식 목사
사 무 총 장	한 상 림 목사